

습관 형성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김은주(서울신학대학교 / 연구원)

kimeu.mac@gmail.com

한글 초록

본 논문은 습관 형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예배라는 기독교의 실천적 장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는 문화적 예전 시리즈에서 지금까지의 주지주의적인 기독교교육에 대해 비판하면서 습관 형성에 관한 탁월한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는 머리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교육에 방점을 두고 습관과 몸의 관계, 습관과 지식의 관계, 습관과 의미체계의 관계, 습관과 인간 형성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예배는 습관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예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스미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본 논문은 우선 습관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개념과 이해를 다룬다. 두 번째로,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습관적 삶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 형성으로서 예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예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습관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몸의 활동을 통한 경험의 축적은 예배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과 배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습관 형성으로서의 예배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재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습관, 몸, 예배, 기독교교육, 아비투스, 습관적 삶, 반복

I. 들어가는 말

존 듀이(Dewey, 2019b)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이나 본능의 창조물이 아니라 습관의 창조물이다. 인간의 삶과 교육에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다. 제임스 스미스(Smith, 2018a; 2019)는 특히 계몽주의 이래로 지나치게 주지주의적 교육에 치우쳐온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삶과 지식의 분리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성만이 아니라 행동과 습관을 통한 교육에 주목한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에 새로운 가능성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는 머리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행동, 특히 습관을 통한 교육에 방점을 두고 습관과 몸의 관계, 습관과 지식의 관계, 습관과 의미체계의 관계, 습관과 인간 형성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예배는 습관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예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스미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본 논문은 습관 형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예배라는 기독교의 실천적 장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습관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개념과 이해를 다룰 것이다. 두 번째로, 몸과 습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습관은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며, 몸은 앞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임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습관 형성으로서 예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다룰 것이다. 예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습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 특별히 습관의 관점에서 예배를 봤을 때, 몸의 활동을 통한 경험의 축적은 예배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과 배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습관 형성으로서의 예배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II. 습관에 대한 이해

1. 듀이: 성장으로서의 습관

듀이(2019b, 52)에게 있어서 습관은 “선행 활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런 의미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그런 종류의 인간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유기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의 경향성을 습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경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라도 독특한 형태로 분명하게 작동할 대비상태”로서 “습관을 행사하는데 알맞은 조건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듀이, 2019a, 102; 2019b, 53). 즉, 습관은 유기체가 유사한 환경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습관은 유사한 상황에서 행위가 자동으로 발생하게 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 없이 매 순간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수행해야 한다면 인간의 활동은 큰 제약받을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다(이주한, 2003, 193). 그러나 습관은 특정한 행동을 기계적으로 단순히 반복하는 과정 그 이상이다. 특수한 조건에서 특정한 행동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습관의 본질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자극에 대해 호감과 혐오를 유지하는 특별한 민감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습관에는 ‘의지’의 의미가 있다(듀이, 2019b, 54). 습관은 유기체의 실제적인 욕구를 형성하여 행동하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더 나아가 습관은 “생각을 규제하며, 어떤 생각이 나와야 하고,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어떤 생각을 덮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듀이, 2019b, 35).” 즉, 듀이에 의하면, 사고 또한 습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은 많은 경우 의지적인 사고와 결단의 결과라기보다는 경험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습관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습관은 타성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외적 조건에 단순히 자신을 맞추어 넣는 것은 타성이다. 타성은 환경에 단순히 동화하는 것이다. 환경에는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신체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 타성의 특징이다. 그러나 습관은 환경에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고정적인 목적에 일반적으로 우리를 맞추어 넣는 경우 습관은 타성이 된다. 타성으로서의 습관은 수동적이다. 오히려 습관은 행동을 통제함으로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한다(듀이, 2019a, 99-100). 습관은 자신의 행동을 환경에 맞도록 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과 습관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듀이는 성장과 습관을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 성장은 행위가 그다음의 결과로 축적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듀이(2019a, 93-102)에게 성장은 교육의 목적이다. 성장에서는 가소성의 개념이 중요한데,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특수한 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에 맞도록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적응적 탄력성을 뜻한다. 다른 말로, 가소성은 과거의 경험 요소를 나중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소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즉,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곧 이전 경험의 결과에 비추어 행위를 수정하는 능력으로서 '성향을 발달시키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통하여 습관이 획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적 노력은 가소성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성장이다.

듀이(2019a, 104)는 습관의 행동적 차원만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성향이어서, 의식적으로는 나쁜 줄 알면서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고정적인 행동양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렇게 습관이 인간을 노예처럼 사로잡고 있는 행동

방식으로 전락하는 것은 지성과 분리되는 경우이다. 습관은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지적, 정서적 성향을 형성한다. 습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기본적 감수성과 방식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자극에 대한 편애와 혐오에 대한 남다른 민감성이나 영향받기 쉬움이 여기에 속한다(Dewey, 2019b, 54). 습관은 지성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험을 통하여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식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되고, 관념과 사상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된다. 관념을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 습관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관념과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다. 듀이(2019b, 41)는 “선행하는 습관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이성이란 허구”라고 말한다. 관념 이전에 행동이 있어야만 그에 관한 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념을 자동으로 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이나 판단, 사유와 같은 정신작용은 모두 습관의 기능과 작용, 재조직 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이주한, 2003, 200; Dewey, 2019b, 41-44).

2. 아리스토텔레스: 제2의 본성으로서의 습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게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그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덕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덕스러운 행위들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본성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동적인 노력이 동반된 덕스러운 행위의 반복을 통해 본성과 유사한 ‘제2의 본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편경희, 2008, 22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덕스러운 사람의 형성원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처럼 타고난 성품의 발현이나 지적 통찰, 혹은 기술의 습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습관화에 있다고 본 것이다. 습관화는 활동을 통해 훌륭함을 얻게 되는 후천적인 과정이다. 즉, 습관화는 인간에게 형성 가능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자

연적 바탕을 문화화하는 활동의 구조로서, 실천적인 훌륭함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행동하기의 습관화를 통해 얻게 되는 제2의 본성으로서의 습관은 본성과는 구분되는 후천적인 것이지만, 본성이나 자연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에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 아무리 많은 행위 하기의 반복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제2의 본성으로서 습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훌륭함의 실천은 행위의 수행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내면적인 성품과 관계된 행위여야 한다. 즉, 훌륭함의 실천은 성품이 반영된 행위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성품을 형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행위자의 성품이 반영된 행위는 실천적 행위이고, 또 실천적 행위는 행위자의 내면을 형성하는 구성적 수단이 된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자가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는 내면적 조건을 윤리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보았다는 것이다(김상섭, 2006, 10-14). 윤리적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내면적 조건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순환적 구조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으로서의 습관은 내면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덕이 덕스러운 행위의 반복과 축적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했을 때, 행위의 축적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과로서의 덕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의 축적 과정을 '에토스'라고 했고,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하나의 지속적 성향을 '헥시스'라고 칭했다. 에토스의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고정적 상태인 헥시스가 나온 것이다. 헥시스의 지속적 성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성향은 쉽게 변하지만 반복되는 에토스에 의해 헥시스가 될 수 있다. 이 헥시스가 곧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던 '제2의 본성'으로서의 습관을 의미한다. '제2의 본성'으로서의 습관은 행동의 내적 원리의 역할을 하며, 항구적이며 반복된다는 점에서 본성과 유사한 면을 갖는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에토스에 의해서 얻어지므로 노력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황수영, 1998,

254-259).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습관은 반복적인 행위로서의 에토스를 통하여 고정적인 핵시스로서의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은 제2의 본성으로서 행동의 내적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3. 피에르 부르디외: 아비투스로서의 습관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후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추동되는 경우가 많다(홍성민, 2014, 19).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르디외(Bourdieu)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회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특정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선호하는 성향을 습득하고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의 체계를 아비투스라고 한다(오경환, 2021, 65-66). 우리의 몸은 아비투스를 통해 특정한 형식으로 주도된다. 걷고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아비투스가 반영된다(홍성민, 2014, 43; Bourdieu, 1995, 62). 이러한 아비투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합적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고 개인이 속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제도로부터 이미 구조화된 아비투스를 습득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법을 배운다. 더 나아가 그에 따라 자신이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 또한 좌우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비투스는 ‘구조화된 구조’이면서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구조화된 구조’는 객관적인 구조가 내면화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전수되는 공동체나 문화의 체현된 전통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아비투스를 말한다. 공동체의 독특한 전통이나 문화와 같은 사회적인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성향이나 구조화된 기질의 형식으로 개인 안에 침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아비투스는 ‘구조하는 구조’로서 개인의 모든 경험을 통합하면서 매 순간 지각과 평가, 행동의 모체로서 기능한다. 즉, 지

각과 뒤따르는 모든 경험의 기초가 되고 개인이 외부의 요구에 반응할 때, 그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끌어 준다. 이는 기존의 경험과 실천에서 획득된 도식을 유사한 상황에 전이시킴으로써, 무한히 다른 상황과 과제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듀이의 습관에서의 ‘가소성’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Bourdieu·Wacquant, 2015, 63, 532; Patrice, 2000, 88-95; Smith, 2018, 150-152).

아비투스(habitus)는 무의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비투스는 지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성향 체계로서 내면화되어 있어서 합리적 성찰이나 의식적 자각 없이 지식과 의식에 우선하는 선(先)인지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교육과 경험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며,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실천을 통해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 아비투스는 점진적인 주입방식을 통해 몸을 주조하는 체화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아비투스의 형성 역시 몸을 통한 새로운 실천을 요구한다(오경환, 2021, 71; Bourdieu, 1995, 62). 체화는 사회적인 힘이 개인의 몸에 주입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체화는 몸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며 의도적인 학습이 아니라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실천적인 미메시스(행위 하기)와 반응, 반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Bourdieu·Wacquant, 2015, 527-528).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실천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실천 감각은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하우나 숙달된 기능과 비슷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몸의 성향 혹은 몸의 이해이며, 개념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이자 감각이다. 실천 감각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고, 실천으로 이해되고, 실천으로 알려지게 된다. 실천 감각은 개념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가 있기에 실천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논리, 혹은 언어로 충분히 표현될 수 없는 논리를 담고 있다(김규보, 2021, 41-42). 개인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몸에 각인된 이러한 실천 감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천 감각은 일상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천과 행동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실천 감각은 내 안에, 혹은 내 정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며, 나의 반응을 촉구하고 말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필수적인 것들을 강요한다. 이러한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실천은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행된다(오경환, 2021, 71; Smith, 2018a, 155-159). 스미스(2018a, 158-159)는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몸의 성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실천 감각을 '믿음'과 연결한다. 실천 감각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이러한 특별한 방식의 의미체계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살펴볼 때, 습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반복 또는 경험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반복은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두 번째로, 습관은 몸의 주조를 통하여 형성되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습관은 몸을 매개로 공동체나 계급에 내재 되어 있는 행동 방식을 따라 하고 그에 반응하고 반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체화된다. 세 번째로, 이렇게 체화된 습관은 사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듀이에 따르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생각들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습관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다. 체화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 즉, 우리는 습관화된 몸과 습관적 앎을 통해 세계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III. 습관화된 몸과 습관적 앎

1. 몸의 의미

인간은 몸을 지닌 존재이다. 습관은 몸의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몸에 배어있게 된다. 우리는 몸과 정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몸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유의지가 몸을 통제하고 몸을 초월하는 순수한 사고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몸은 단순히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다. 몸과 정신은 분리될 수 없다. 몸은 자신과 분리되어 대상화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다. 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몸 자체가 자기 자신이다. 몸은 대상화된 사물처럼 자신이 의식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식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Smith, 2018a, 101).

존슨(Johnson, 2007, 44, 417-418)은 몸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지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태학적 몸, 실생활로 실현되고 경험하는 현상학적 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회적인 몸, 문화적 차원과 상호작용하는 몸이다. 그는 몸의 경험을 토대로 마음과 의미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몸은 끊임없이 물리적,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경험 과정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가 생성되고, 새로운 차원의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몸에 내재한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몸'을 다층적 구조로 이해했다. 가장 아래층의 몸은 화학적 요소들의 총체로서의 몸이다. 그 위는 화학적 요소들의 총체로서의 몸이 생물학적 환경과 상호관계를 맺도록 매개해주는 몸이다. 그 위층의 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 상호관계를 맺도록 해 주는 몸이다. 여기에서 상위층은 하위층에 의해 토대 지워지며, 상위층은 하위층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질서이다. 그러면서도 이 층들은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몸이다. 몸은 운동능력과 지각 능력의 총체인데 동시에 이러한 능력들이 획득되도록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몸을 매개로 우리는 세계로 나가고 세계 속에서 몸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

다. 우리의 몸은 세계로 나가게 하는 통로이며 우리와 세계를 매개해준다 (한정선, 2006, 3-5). 몸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토대이다. 우리는 몸의 자기 은폐적 성향 때문에 사물을 보거나 만질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내장 기관의 움직임이나 활동 과정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 내 몸은 보이지 않고 세계가 보인다. 사물을 만질 때, 내 몸은 만져지지 않고 사물이 만져진다. 이렇듯 몸은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이며 인식 작용의 기원이고 의식에 앞서 존재한다(양금희, 2013, 51; 2014, 101; Jonhson, 2007, 36-37; Smith, 2018a, 102).

2. 습관화된 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중요한 기본태도의 핵심은 지적인 통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성품에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교수-학습이 아니라 행위 하기의 습관화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습관화는 실천적인 훌륭함을 습득하는 원리이며 인간의 잠재적 형성 가능성으로서의 자연적 바탕을 문화화하는 활동 방식이다(김상섭, 2006, 10-14; 한정선, 2006, 10). 습관화는 행위 하는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몸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자신에게로 옮겨놓는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길을 찾는 경우, 처음의 길 찾기는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전체의 과정을 그려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길 찾기를 통하여 운동 과정이 그의 몸에 안착되고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전 과정이 그의 몸에 새겨지게 된다. 이를 통하여 그는 세계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는 것이다. 즉, 그의 운동 방식이 몸에 습관화되고 이를 통하여 시각 장애인은 자신에게 낯설었던 세계를 자신에게로 옮겨놓게 되고,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의 세계는 습관화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넓어졌다. 몸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습관을 통하여 세계로 나

가는 것이다. 습관은 세계에로의 존재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도구들에 우리를 합병시킴으로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로 나가는 몸은 이렇듯 이미 습관화된 몸이다(한정선, 2006, 3-8; Merleau-ponty, 2021, 229). 메를로-퐁티(2021, 227-234)에 따르면, 습관은 세계에 맞을 내리고 있고, 우리에게 세계를 매개해주는 몸을 통해서 획득되고, 몸속에 자리 잡는다. 습관은 지성 작용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와 교감하면서 지각하고 행동할 때 세계는 특정한 방식의 일정한 질서로 구조화되고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육화되어있는 것이 습관이다. 우리의 몸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은 우리의 의미체계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양금희, 2014, 98). 어떤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몸이 새로운 의미에 침투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습득된 습관은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규정하며,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Smith, 2018b, 65).

3. 습관적 삶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지각한 후 그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지각함과 판단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어떤 장면을 지각하자마자 그것에 관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성향에 근거해 그 장면을 판단하고 이후에 그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을 덧붙이게 된다. 사람의 감정 역시 인지적 판단에 대한 반응이나 그 위에 더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반대다. 즉, 정서가 먼저고 사고는 그 후에 온다.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 안에 내재해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성향은 몸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Smith, 2018a, 77-79). 그러므로 메를로-퐁티(2021, 242)는 모든 지각적 습관은 운동적 습관이고 의미

의 파악이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몸에 의해서 세계가 내적으로 떠맡아지고 재구성되고 경험된다는 의미이다(한정선, 2006, 14-15)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일일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작동되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 스미스(2018a, 93-148)는 이를 ‘경험의 지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러한 경험의 지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된 것이고 자신만의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습관화이고 경험의 축적이다. 세상에 다가가는 이러한 본원적이며 일차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명제적 처리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해한다. 이는 ‘의식보다 앞선 지식’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주지주의에서 말하는 논리와 이성 차원에서 지식인 아니라 신체적인 노력으로 발현되는 손과 눈과 같은 몸 안에 있는 지식을 말한다(Merleau-ponty, 2021, 229). 이러한 경험의 지평은 자신의 세상을 구성하기 위한 배경을 이룬다. 즉, 축적된 경험과 습관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만의 경향을 형성한다(Smith, 2018a, 104-105). 브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과 유사하게 습관은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Smith, 2018a, 114). 특별히 스미스(2018a, 148)는 우리의 행동들은 대부분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 오히려 별 생각 없이 하는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식적 사고에 의해 우리의 행동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습관인 성향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인류 진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개인의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몸에 축적된 이러한 경험은 내가 대상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바탕이다. 지각은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이미 형성된 구성을 다시 사용하는 재구성이다. 무언가를 지각할 때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경험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복원되고 재구성된다. 몸이 특정한 방식으로 소리에 반응하고 색깔에 교감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축적인 습관의 바탕에

서 이루어진다. 운동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은 신체이며 몸을 통한 습관의 획득이 진정한 의미의 파악인 것이다. 몸이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습관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몸의 지향성도 습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렇게 경험의 축적을 통해 습관화된 몸에 축적된 앎을 “습관적 앎”, “암시적 앎”, “잠재적 앎”이라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했다. 나의 몸과 감각들은 이미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습관적 앎”, 암시적 앎, 축적된 앎에 의해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한정선, 2006, 14-15, Merleau-ponty, 2021, 227).

이와 유사하게 폴라니(Polanyi, 2015) 는 우리의 앎이 명시적인 지식으로 구체화 되기 이전에 이미 암묵적인 지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명시적인 지식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몸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폴라니에게 있어서 개인의 신체적 참여는 지식 습득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는 내주하는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내주는 파악하려는 대상의 존재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주하는 지식이란 인식자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지식이다. 따라서 내주하는 지식은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오는 지식이 아니라, 의식적이지 않으나 우리 신체에 동화된 지식이다. 이는 곧 내면화된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내주하는 지식은 지식의 대상과 거리를 두고 의식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지만, 몸을 이용하여 주변의 것들을 감지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적응하면서 몸 안에 스며든 지식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면서 세계로 나아가고 습관을 형성하고 지식을 획득한다. 몸을 통하여 의식하지 않고 형성되는 내주하는 지식은 모든 이해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인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양금희, 2019, 83-85; 한철희, 2004, 407-410). 이러한 암묵적인 지식은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전통 안에 머물면서 오랜 과정을 통해 개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오승성, 2012, 126).

IV. 습관 형성으로서 예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예배는 무엇보다 몸을 통하여 참여하는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습관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예배에서 보고 듣고 눈을 감고 노래하고 만지고 맛보고 움직인다. 이러한 몸의 참여 없이 정신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예배는 예배자가 자신의 몸으로 전 인격이 통합되어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메틀로-폰티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예배는 몸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나아가는 훈련의 장이다. 예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습관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별히 예배를 몸의 활동을 통한 경험의 축적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예배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과 배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일종의 습관이라고 보았을 때,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배는 반복적 실천의 공간이다.

우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들인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그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배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격적으로 드리기보다는 특별한 의미나 동기 없이 반복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듀이의 말대로 예배가 타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테일러(Taylor, 2015, 27)는 현대의 도덕적 이상을 '자기 진실성'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부여된 가치 기준이나 규범과 같은 사회적 요구들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요구이다. 이런 '자기 진실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예배에 감격 없이 참여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자기 진실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이며 예배의 주체자는 인간이다. ‘자기 진실성’은 자기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며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 즉 주관화를 비켜 갈 수 없다(Taylor, 2015, 106-107). 이런 관점에서는 예배자의 주관적 만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배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배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진정성 있게 드렸는지가 예배 성공의 척도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 웨버(Webber, 2011, 108-109) 역시 현대의 자기중심주의의 영향으로 찬송에서 ‘내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스미스(2018a, 214-125; 2018b, 113-118)는 기독교 예배에서 주요한 행위자 또는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예배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보여드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지향점을 재조정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사랑을 재형성하시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어의 ‘예배’라는 단어에도 잘 드러난다. 독일어로 예배는 ‘Gottesdienst’인데, Gott은 하나님을 말하고 Dienst는 섬김, 봉사를 의미한다. 즉, 독일어로 예배, Gottesdienst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섬긴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임과 동시에 예배의 행위자이면서 주체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주시는 봉사이기도 하다(Luther, 2017, 58, 각주 참조). 그러므로 루터는 예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했고, 대교리문답의 십계명 첫째 계명의 해석에서 ‘근본적인 삶의 지향점’으로 예배를 해석한 것은 일리가 있다(Grethlein, 2014, 117-118; Luther, 2017, 51-73). 스미스의 말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재형성하여 근본적인 삶의 지향점을

재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반복이 중요한 핵심이다. 스미스(2018b, 126-129)는 반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바로잡으시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반복 없이 형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전망과 사랑이 인간에게 새겨지고 주입되어 제2의 본성이 되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덕스러운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고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덕스러운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비록 자연적인 본성은 아니지만 '제2의 본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편경희, 2008, 222; 황수영, 1998, 255).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지향점을 재조정하시는 자리인데, 이는 곧 우리의 습관을 재형성해나가는 자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습관과 마찬가지로 예배에서도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은 예배와 같은 모든 제의의 속성이다. 예배는 반복에 의해 존속된다. 반복을 통하여 예배는 강화되고, 새롭고 불안정적인 요소들이 동화되어 형태를 얻게 된다. 형식화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 반복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되고 모방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숙고하지 않고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복을 통하여 예배자들은 교육층과 연령층, 언어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김은주, 2021, 299; Jetter, 1978, 103-104). 물론 반복이 생명력 있는 수행이 아니라 일종의 길들임, 즉 타성이 되어버리는 것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예배는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반복함으로써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Schweitzer, 2012, 198-199).

반복적인 경험의 축적인 습관이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과 배경을 형성한다면, 사람의 구성 지평을 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배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복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습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재)생성하는 데 있다. 기독교 예배에서 행해지는 반복적인 실천은 세계를 이해하는 의미체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Smith, 2018b,

55). 습관은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우리의 성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 실천은 아무 의미 없이 행해지는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성향을 형성해 나가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Smith, 2018a, 104-105).

2. 예배는 습관적 앎이 형성되는 자리이다

우리의 몸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의미체계 형성에 기여한다. 메를로-퐁티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습관화된 몸에 축적된 앎을 ‘습관적 앎’이라고 표현했다. 습관적 앎은 명시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몸의 습관을 통해 몸에 새겨진 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예는 자동차 운전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경우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명시적인 지식으로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연습인 습관화를 통해서 우리 몸이 그 방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적 지식은 몸에 내주하기 때문에 내주적 지식, 혹은 습관적 지식이라고 불릴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지식은 몸과 분리될 수 없는 지식이며,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신체적 노력을 기울일 때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지식이며, 몸이 알고 있는 지식이며 몸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대상과 분리되어 거리를 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다(오승성, 2012, 125).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예배 역시 몸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이에 대해 스미스(2018a, 167)는 “예배는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몸으로 믿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라고 표현했다. 네이션 미첼(Mitchell, 2014, 281)이 예배를 ‘몸의 기도’이며 ‘몸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예배자는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 안에 거하면서 오랜 기간 몸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몸에 습관화되고 예전이 보여주

고 있는 의미를 몸에 새기게 된다. 몸을 통하여 알게 되는 습관적 앎은 교훈적이지 않고 운동 미학적이다. 똑바로 앉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자세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세상을 지각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다.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동작에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우주관이 우리 안에 주입된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움직임들과 자세, 반복되는 말과 의례화된 리듬에 참여하는 실천은 하나의 아비투스(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공통의 아비투스를 우리 몸 안에 새겨 넣는 과정이다.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지향하는 근원적인 원칙이나 가치가 주입되고 체화되어 암묵적으로 예배자의 생각과 가치 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양금희, 2019, 82-83; 유은희, 2019, 171; Smith, 2018a, 171-175). 이렇게 몸으로 학습한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이루는 무언가가 됨으로써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앎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앎이 되고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앎이 된다(Smith, 2018a, 176-177).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성품에 새겨진 제2의 본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참여적 활동을 통하여 명시적 지식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전망을 암묵적으로 몸에 새기는 자리로서 습관적 앎이 형성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몸을 지닌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재형성해나가는 눈높이 교육이 일어나는 배움의 자리인 것이다(유은희, 2019, 160). 스미스는 예전은 참여자로 하여금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상상하게 하여 그의 충성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오경환, 2021, 68; Smith, 2019, 127-129). 세속 예전에 의해 체화된 아비투스가 가리키는 텔로스(텔로스)는 경쟁과 돈과 권력이라는 세속적인 가치들과 그 방향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전혀 다른 텔로스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친히 만물을 다스리며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과 살롬의 전혀 다른 전망을 지향하는 습관적 앎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오경환, 2021, 73).

V. 나가는 말

그동안 기독교교육은 주지주의적 교육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식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들이 소개되어왔다. 같은 맥락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삶과 지식의 분리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성만이 아니라 행동과 습관을 통한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에 새로운 가능성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스미스의 연구의 도움을 얻어 습관 형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예배라는 기독교의 실천적 장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예배는 습관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예전이다. 기독교 예배는 아비투스가 체화될 수 있는 자리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텔로스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형성해 주는 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습관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개념과 이해를 다루었다. 듀이와 아리스토텔레스, 브르디외가 강조하는 습관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간의 행동과 교육을 위한 습관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몸과 습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습관은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며, 몸은 앞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이다. 마지막으로 습관 형성으로서 예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다루었다. 예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습관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 몸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경험의 축적은 습관적 앎을 형성하고 예배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과 배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습관 형성으로서의 예배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재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규보 (2021). 기독교 상담의 텔로스. 기독교 아비투스로서의 상담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과 신학**, 98, 33-70.
- [Kim, K. B. (2021). Teloses of Christian Counseling: Biblical Worldviews for Counseling as Christian Habitus. *Bible and Theology*, 98, 33-70.]
- 김상섭 (2006).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습관화로서의 도덕교육. **교육철학**, 36, 7-25.
- [Kim, S. S. (2006). Moral education as habituation in Aristotle.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 7-25.]
- 김은주 (2021).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격발달을 위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예배의 의미. **기독교교육논총**, 68, 279-306.
- [Kim, E. J. (2021). The meaning of children's worship as a liturgy for personality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modern socie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8, 279-306.]
- 양금희 (2013). 어린이영성, 감성 그리고 감각의 관계를 통해서 본 어린이 영성형성 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34, 31-63.
- [Yang, K. H. (2013). The Orientation of the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of Children' Spirituality and Emotion and Sen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31-63.]
- 양금희 (2014). 의례이론과 의례적 인식론을 통해서 본 예전의 기독교교육적 의미. **기독교교육논총**, 37, 83-114.
- [Yang, K. H. (2014). A Study on the Meaning of Liturgy for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the Ritual Theory and Ritual Epistemolog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83-114.]
- 양금희 (2019). 예전적 인식론을 통해서 보는 기독교교육의 새 지평. **기독교교육논총**, 58, 79-117.
- [Yang, K. H. (2019). New horizons of Christian education through the liturgical epistemolog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8, 79-117.]
- 오경환 (2021). 제임스 스미스의 아비투스를 통한 몸의 욕망과 형성: 뉴노멀 시대의 고찰. **신앙과 학문**, 26, 63-83.

- [Oh, K. H. (2021). James Smith's study on desire and formation of the body through habitus: A study in the new normal era. *Faith and Science*, 26, 63-83.]
- 오승성 (2012). 신학자의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의 '객관적인' 지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 109-134.
- [Oh, S. S. (2011). Theologian's personal commitment and objective knowledge in theology: Centering around Karl R. Popper and Michael Polanyi.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79, 109-134.]
- 유은희 (2019). James K. A. Smith가 제안하는 기독교교육 및 형성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60, 153-193.
- [Yoo, E. H. (2019). A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and formation envisioned by James. K. A. Smi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153-193.]
- 이주한 (2003). 듀이의 습관 개념과 교육. **교육철학**, 30, 189-208.
- [Lee, J. H. (2003). Dewey's concept of habit and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0, 189-208.]
- 편경희 (2008). 존 듀이 습관 개념의 재조명. **교육철학**, 42, 221-237.
- [Pyun, K. H. (2008). A new perspective on John Dewey's concept of habit.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2, 221-237.]
- 한정선 (2006). 습관과 습관적 삶에 대하여-메를로-퐁티와 신경과학과의 대화-. **현상학과 현대철학**, 29, 1-25.
- [Han, J. S. (2006). On habit and habitual knowledge: a dialogue between Merleau-Ponty and neuroscience.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29, 1-25.]
- 한철희 (2004). 신앙 교육을 위한 "지식의 암묵적 내구성" 고찰: 마이클 폴라니의 인식론과 파커 J. 팔머의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399-428.
- [Han, C. H. (2004). A Study of the Tacit and Indwelling Knowledge for Faith Education Through the Epistemology of Michael Polanyi and the Spiritual Education of Parker J. Palmer.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31, 300-428.]
- 홍성민 (2014). **취향의 정치학**. 서울: 현암사.

- [Hong, S. M. (2014). *The politics of taste*. Seoul: Hyeonamsa.]
- 황수영 (199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자연과 습관. **현상학과 현대철학**, 10, 251-271.
- [Hwang, S. Y. (1998). Nature and habit for Aristotle.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10, 251-271.]
- Bourdieu, P.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역. 서울: 새물결. (원저 1982 출판)
- [Bourdieu, P. (1995). *Language and symbolic power*. Translator: Jung, I. J. Seoul: Saemulgyul.]
- Bourdieu, P.·Wacquant, L. (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이상길 역. 서울: 그린비. (원저 1992 출판)
- [Bourdieu, P.·Wacquant, L. (2015).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Translator: Lee, S. K. Seoul: Greenbee.]
- Dewey, J. (2019a). **민주주의와 교육**. 이흥우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 1916 출판)
- [Dewey, J. (2019a). *Democracy and Education*. Translator: Lee, H. W. Paju: Kyoyookbook.]
- Dewey, J. (2019b). **인간 본성과 행위 I**. 최용철 역, 서울: 도서출판 봄. (원저 1922 출판)
- [Dewey, J. (2019b). *Human nature and conduct I*. Translator: Choi, Y. C. Seoul: Bom.]
- Grethlein, C. (2014). **교회의 아이들**. 김상구·김은주 역. 서울: CLC. (원저 2010년 출판)
- [Grethlein, C. (2014). *Kinder in der kirche*. Translator: Kim, S. G.·Kim, E. J. Seoul: CLC.]
- Jetter, W. (1978). *Symbol und ritual. anthropologische elemente im gottesdiens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Johnson, M. (2007). **몸의 의미**. 김동환·최영호 역. 서울: 동문선.
- [Johnson, M. (2007). *(The) meaning of the body: aesthetics of human understanding*. Translator: Kim, D. H.·Choi, Y. H. Seoul: Dongmunseon.]

- Luther, M. (2017). **대교리문답**. 최주훈 역.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저 1529년 출판)
[Luther, M. (2017). *Der grosse catechismus*. Translator: Choi, J. H. Seoul: The Blessed People.]
- Merleau-ponty, M. (2021).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1945 출판)
[Merleau-ponty, M. (2021).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or: Ryu, U. G. Seoul: Moonji.]
- Mitchell, N. (2014). **예배, 신비를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원저 2006 출판)
[Mitchell, N. (2014). *Meeting mystery: Liturgy, worship, sacraments*. Translator: An, S. H. Seoul: Bybooks.]
- Patrice, B. (2000).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문경자 역. 서울: 동문선. (원저 1997 출판)
[Patrice, B. (2000). *Introduction to Bourdieu sociology*. Translator: Moon, G. J. Seoul: Dongmunsun.]
- Polanyi, M. (2015). **암묵적 영역**. 김정래 역. 서울: 박영사. (원저 1962 출판)
[Polanyi, M. (2015). *Tacit knowing*. Translator: Kim, J. L. Seoul: Parkyoungsa.]
- Schweitzer, F. (2012).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 손성현 역. 서울: 산티. (원저 2000 출판)
[Schweitzer, F. (2012). *Das recht des Kindes auf religion*. Translator: Son, S. H. Seoul: Shanti Books.]
- Smith, J. K. A. (2018a).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박세혁 역. 서울: IVP. (원저 2013 출판)
[Smith, J. K. A. (2018a). *Imagining the kingdom*. Translator: Park, S. H. Seoul: IVP.]
- Smith, J. K. A. (2018b). **습관이 영성이다**. 박세혁 역. 파주: 비아토르. (원저 2016 출판)
[Smith, J. K. A. (2018b). *You are what you love*. Translator: Park, S. H. Paju: Viator.]
- Smith, J. K. A. (2019).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박세혁 역. 서울: IVP. (원저 2009

출판)

[Smith, J. K. A. (2019). *Desiring the kingdom*. Translator: Park, S. H. Seoul: IVP.]

Taylor, C. (2015). **불안한 현대 사회**. 송영배 역, 서울: 이학사. (원저 1991 출판)

[Taylor, C. (2015). *The malaise of modernity*. Translator: Song, Y. B. Seoul: Ehak Publishing Co.]

Webber, R. E. (2011).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CLC. (원저 2008 출판)

[Webber, R. E. (2011). *Ancient-future worship*. Translator: Lee, S. J. Seoul: CLC.]

Abstract

**Christian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worship as
habit formation**

Eun-Ju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ristian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habit formation through the practical field of Christianity called worship. In the Cultural Liturgy series, James Smith criticized the intellectualistic Christian education so far and opened up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of possibility for Christian education through a unique study on habit formation. He focuses on education through actions, not education through the mind, and deals in depth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abits and the body, between habits and knowledge, between habits and meaning systems, and between habits and human formation. Among them, it is emphasized that worship is a major liturgy that forms the identity of the participants through habits. Accepting Smith's position positively, this thesis first deals with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major thinkers about habit. Second, we will look at habitual knowledge through the body. And lastly, it deals with Christian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worship as a place of habit formation. Worship is not a one-time event, but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habit in terms of regular body practice. In particular, when we look at worship from the point of view of habits, it can be seen that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s through bodily activi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horizon and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the world of the

worshiper. Therefore, this thesis is meaningful in seeking and reconfirming the Christian educational possibility of worship as a habit formation.

《 **Keywords** 》

habit, body, worship, christian education, habitus, habitual knowledge, repetition

- 투고접수일 : 2022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29일